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출범식

2018. 2. 22(목), 10:00
캠코 강남본부 14층 대회의실

祝 辭

2018. 2. 22.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 종 구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의 출범을 알리는
오늘 이 뜻 깊은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재단법인의 양혁승 이사장님과 이사진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가장 취약한 분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일은
우리 사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제대로 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꺼이 나서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재단법인 출범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금융회사와 각 협회,
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과 관련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민병두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일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시민단체와 금융권, 지자체 등
우리 모두가 협력해 나가야 할 일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처음 그린 밑그림에
여러 시민·소비자 단체에서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의사를 보내주셨고,
지자체에서도 지원 신청 접수 등에
도움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특히, 지난해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소각을 통해
장기연체자 약 300만명*의 재기를 지원하는 등
포용적 금융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주신
금융권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약속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간 금융회사 177만명(8조원) 및 공공부문 123만명(22조원) [중복포함]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해나가려는 이 일은,
자력으로는 현재의 상황에서 나아질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을 만드는 일입니다.

정부는,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많은 분들께 열심히 알리고,
혹여라도 부당하게 악용되는 사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몇 달간
재단법인의 출범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주신
자산관리공사 실무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띄우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이라는 이 배가
계획된 항해를 잘 마치고 돌아올 때,
우리 모두 다시 모여
박수치며 환영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재단법인의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